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 손본다 출하량 조절·설치 비용 현실화

갤럭시A 시리즈 출하 목표 조정
사다리차 이용 등 일부비용 청구
엔지니어 안전·관리 보호 취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 목표를 낮추고 가전제품 설치비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등 완제품 사업에서 비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은 제조원가 상승에 대응해 생산 물량을 줄이고 가전사업에서는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일부 특수 설치 서비스에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설치비 변경은 비용 절감보다 설치 엔지니어의 관리 보호에 무게를 둔 조치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탑재한 갤럭시A 시리즈의 출하 목표를 기존 1억 2000만대에서 1억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보다 2000만대(16.7%) 줄어든 규모로, 올해 예상 출하량인 1억 1000만대에도 못 미친다.

올해 전체 스마트폰 출하 목표도 기존 2억 4000만대에서 2억 3000만대 초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최

근 협력사에 전달한 4분기 부품 발주량 전망치를 낮춘 데 따른 것으로 내년에도 스마트폰 출하 목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하 목표 조정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했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공급도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앞서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영업이익 89조 2000억원을 거둔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영업손실 8000억원을 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반도체 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완제품 사업에는 원가 부담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생산 물량을 줄이는 데 이어 가전사업에서는 일부 특수 설치 서비스에 별도 요금

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 과정에서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거나 별도 운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추가 요금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특수장비 사용, 수작업 운반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다리차 이용료는 층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최대 15만원이며, 스카이차는 최대 29만원이다. 일반적인 배송·설치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이번 가전 설치 요금 부과 비용 절감보다는 설치 엔지니어의 안전과 관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구 배송이나 이사 과정에서 특수장비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것처럼 일반적인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 한해 비용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비스로 제공하던 부분이지만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20일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물류 운송 사업 실증’ 업무협약식에서 현대글로벌 미래물류기술센터 한규현 상무(왼쪽부터), 라이드플렉스 박종희 대표, 현대차 글로벌상용&LCV 사업본부 박철연 전무, 현대차·기아 상용LCM담당 박상현 부사장, 마스오토 박일수 대표, 현대모비스 통합구매실 남석운 상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레벨4 자율주행 트럭 ‘시동’

내년 말까지 실제 물류환경 실증

현대자동차·기아가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를 위해 실제 물류 환경에서 기술 신뢰성과 운행 안정성 검증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남양기술연구소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마스오토, 라이드플렉스와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물류 운송 사업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엑시언트 수 소전기트럭 1대와 엑시언트 1대 등 총 2대의 실증 차량 개발에 착수해 내년 초 제 공할 예정이다. 각 차량에는 자율주행 시

스템 연동을 위한 맞춤형 제어기와 차량 인터페이스가 적용된다.

본격적인 실증은 내년 말까지 약 100km의 고속도로·도심 복합 구간과 약 400km의 고속도로 중심 장거리 구간 등 2개 운송 환경에서 진행된다.

국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마스오토와 라이드플렉스는 각 특화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벌은 기존에 운영되는 물류 노선을 활용해 실증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레벨 4 자율주행 대형 트럭의 차량 제어 및 안전 이중화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차세대 교통안전 솔루션 선보

2026 ITS 세계총회

V2X·V2N 결합 솔루션 시연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영역 확대

LG전자가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과 주행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차량 주변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통합 교통안전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오는 23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2026 ITS 세계총회(ITS World Congress)’에 참가해 차세대 교통안전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차량·사물 간 통신(V2X)과 차량·네트워크 간 통신(V2N)을 결합한 교통안전 솔루션을 실제 도로에서 시연한다. 참가자들은 약 2.6km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고장·



V2X의 빠른 응답성과 V2N의 넓은 서비스 범위를 상호 보완한 LG전자 통합 교통안전 솔루션 개념도. /LG전자

정지 차량과 도로공사, 악천후, 급급차 접근, 보행자 충돌 위험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V2X는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도로 인프라와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별도의 이동통신망을 거치지 않아 주변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반

면 V2N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차량을 클라우드 서버 등과 연결해 보다 넓은 지역의 교통·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LG전자는 두 기술의 장점을 결합해 통신 환경에 따른 정보 전달의 한계를 보완했다. 도로변이나 신호등 등에 설치된 노변기지국(RSU)의 통신 범위에서는 V2X와 V2N으로 수집한 정보를 함께 활용하고, 직접 통신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V2N을 통해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주변 교통 상황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솔루션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넉(Euro NCAP)의 최고 등급 기준을 충족한다.

LG전자는 완성차 업체들의 안전성 평가 대응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에 필요한 통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HMM, LNG 대형 선박·피더선 동시 확충

2조 투자… 해운시장 경쟁력 강화

HMM이 컨테이너선 12척 확보에 약 2조원을 투자하며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형 선박과 피더선을 동시에 확충해 원양 핵심 항로의 운송 효율을 높이고, 주요 거점 항만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HMM은 20일 HD현대와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선박은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저탄소 선박이다. HD현대삼호가 6척, HD현대중공업이 2척을 각각 건조하며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HMM은 2800TEU급 3척과 1700TEU급 1척 등 피더선 4척도 리세일 방식으로 확보한다. 리세일은 건조 중인 선박의 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규 발주보다 선대확

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선은 극동·인도·지중해를 잇는 FIM 노선에 투입하고, 피더선은 거점 항만과 지선망을 연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HMM의 중장기 선대 확충 전략의 일환이다. 회사는 2030년까지 컨테이너선 166척과 벌크선 110척 체제를 구축하는 등 총 2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원혁 사장이 취임한 2025년 3월 이후 누적 투자 규모는 12조원이며, 올해 투자액은 이번 선박 투자를 포함해 약 6조원에 이른다.

피더선은 2025년 3월 12척에서 올해 운항·발주 선박 기준 42척으로 늘었다. 벌크선 역시 같은 기간 44척에서 60척으로 증가했으며, 가스선과 자동차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있다. 미국 타코마 터미널의 크레인 교체와 디지털 전환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GS글로벌, 후시파트너스 지분 투자

탄소배출권 사업 전략적 협력기반 마련

GS글로벌이 탄소배출권 전문기업 후시파트너스에 지분을 투자하며 탄소배출권 사업을 확대한다. 전기버스·재생에너지 등 기존 친환경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산화하고 거래·중개로 연결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GS글로벌은 후시파트너스에 지분투자를 단행하고 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후시파트너스의 감축사업 개발·운영 역량과 GS글로벌의 친환경 사업 기반을 결합해 탄소배출권 확보와 거래를 추진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시행과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기업들의 배출권 조달 부담이 커지는 만큼, GS글로벌은 이번 협력으로 관련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GS글로벌은 후시파트너스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존 친환경 사업에서 감축실적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버스 전환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자원순환 분야에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KOC를 수요처에 공급하는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해의 사업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트레이딩 역량을 활용한다. 양사는 GS글로벌의 해외 철강·에너지·산업재 고객을 대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美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정밀의료시장 공략

‘시프트 유어 사이언스’ 개최

삼성전자가 최대주주인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가 1인당 유전체 분석 비용을 100달러(약 13만원)로 낮춘 장비를 국내서 선보인다. 유전자 분석 장비와 신약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앞세워 정밀의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엘리먼트가 20일 서울 마포구 라이즈 호텔에서 글로벌 로드쇼 ‘시프트 유어 사이언스(Shift Your Sci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전자 분석 장비 ‘비타리(VITARI)’를 시연하고, 여러 생체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사이토스(Cytos)’의 첫 출하를 발표한다.

기조강연은 공동 창립자인 물리학 최고경영자(CEO)와 마이클 프레이비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맡는다. 엘리먼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미국 샌디에이고와 독일 뮌헨, 스웨덴 스톡홀름 등에서도 로드쇼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비타리는 탁상형 크기로 대량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장비다. 회사에 따르면 분석 정확도는

99.99%이며, 한 번에 처리하는 분석량은 기존 제품보다 5배 이상 많다. 이를 활용해 희귀질환과 암 연구, 개별 세포의 RNA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개하는 사이토스는 개별 세포에서 다양한 생체정보를 확보하는 솔루션이다. 세포 형태와 단백질 발현, 세포에서 생성되는 RNA 전체인 전사체 등을 하나의 기기로 분석한다. 이 같은 멀티오믹스 기술은 다양한 생체정보를 종합해 유전정보가 세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데 쓰인다.

/구남영 기자